

〈서 평〉

Theory and Concept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박준언*

저서 제목: Theory and Concept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저자: Ian Bruce (2011, 2015)

출판사: Palgrave Macmillan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전공과목들을 비롯한 학문관련 강의들을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교육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가 글로벌 통용어(lingua franca)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유지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ax Britanica로 대변되는 18-19세기 대영제국의 글로벌 식민지 경영과 Pax Americana로 명명되는 20세기 이후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으로 인해 영어는 7,000 여개에 이르는 언어 생태계의 최정점에 서 있다. 초강력 언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은 인류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특히 고등학문 영역에서의 영어의 위상은 타 언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일례로 글로벌 100대 고등교육기관들의 70% 이상이 영어를 매체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러한 고등교육기관들의 영어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등교육기관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학문적 영어사용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학자들 및 응용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수법 및 학습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교육은 특수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일반 영어교육과 달리, 언어와 학문적 내용을 통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 내용을 기반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내용기반 언어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바, 영어매체교수(English Medium Instruction)가 대표적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문목적영어교육의 원리 및 실재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첫 저서는 R. R. Jordan (1997)이 집필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로 알려져 있다. Jordan은 이 저서에서 학문목적영어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학문목적영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저서는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촉발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의 저서에 다양한 EAP 관련 주제들을 다루다보니 각 주제들에 대한 소개 및 분석에 있어서 학문적 깊이가 다소 결여되었고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

Jordan의 저서가 출판된 14년 지난 2011년 Ian Bruce의 저서 'Theory and Concept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가 출간되었다. 총 227쪽의 비교적 짧은 분량의 이 저서는 Jordan의 저서에서 다루어진 EAP 관련 주제들 중, 핵심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EAP의 이론적 기초, EAP 교육과정 디자인, EAP 교육과정 실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EAP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1장: EAP의 핵심적 이슈 및 개념, 2장: 학문세계 탐구, 3장: EAP 교육과정 디자인에 반영할 학습자 요구의 세 장으로 세분된다. 제1장에서 Bruce는 EAP의 정의를 Widdowson(1983)이 구분한 협의의 능력인 *competence*와 광의의 능력인 *capacity* 중에서 *capacity* 함양에 중점을 둔 개념의 정의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EAP 교육과정을 학습자 요구의 관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진학 준비용 EAP 교육과정과 고등교육기관 재학 용 EAP 교육과정을 구분한다. EAP의 지향성에 대해, Bruce는 수용주의적 태도와 비판주의적 태도의 두 가지 상충되는 입장을 소개하며, EAP 교육과정은 기본적 속성상 이 두 가지 태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제2장에서, Bruce는 학문세계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바, 학문세계를 언어공동체(*speech community*), 담화공동체(*discourse community*), 실행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의 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상이한 학문분야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론(*ontology*)과 인식론(*epistemology*)의 두 차원의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정 학문 영역의 지식과 실행을 연구하기 위한 주요 방법론들로서 민족지학적 접근(*ethnographic approaches*), 장르기반 접근(*genre-based approaches*), 코퍼스기반 접근(*corpus-based approaches*)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EAP 교육과정 디자인을 위한 학습자의 요구사항 분석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현재 상황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정보, 학습 목적, 학습방법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목표 상황 분석에서는 학습언어의 필요성 이유, 학습언어 사용 방식, 학습 학문 영역, 언어사용 대상, 언어사용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저서의 제2부는 EAP 교육과정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서, 4장: EAP 교육과정 개발 원리 및 모형, 5장: EAP 교육과정에서의 전공학문 지식, 6장: EAP 교육과정에서의 언어지식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 Bruce

는 EAP 교육과정에서 함양할 지식 유형으로서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중 절차적 지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EAP 교육과정 목표는 원자론적 목표보다 전체론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식의 처리에 있어서, Bruce는 상황에 따라 상향식 지식 처리와 하향식 지식 처리 양자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EAP 교육과정에 유형으로는 원자론적, 인위적인 합성적 교육과정보다 언어사용의 필수 담화 자질들을 보존하는 분석적 교육과정을 디자인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EAP 교육과정 개발 원리는 기본적으로 Widdowson이 주창한 광의의 능력(capacity) 함양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5장은 EAP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전공학문 지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EAP 교육과정이 고등교육기관 진학 준비용인지, 고등교육기관 재학 용도인지에 따라 취급해야 할 학문지식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학문내용 교수자와 언어교수자간의 협력의 깊이의 관점에서 단순 협력(cooperation), 심화 협력(collaboration), 팀티칭(team teaching)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전공학문 텍스트 및 담화 분석을 위해, 학문적 맥락, 인식론, 학문적 입장, 내용 스키마, 인지 장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6장은 EAP 교육과정에서 취급해야 할 언어 지식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Bruce는 전체론적 원리에 기반한 EAP 교육과정에서 취급해야 할 언어적 요소들(통사구조, 문법, 어휘 등)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텍스트 문법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즉, 학문 텍스트의 사회적 장르, 메타담화, 인지 장르, 담화 유형, 응집성/통일성, 어휘, 형태론 등 언어적 요소들을 통합해서 취급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한다. 학문 텍스트 처리의 핵심인 어휘지식 연마를 위해, 맥락 분석, 콘커던싱(concordancing), 성분 분석, 어휘 망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3부는 EAP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7장: EAP 교육 담당 교수자의 역량, 8, 9, 10, 11장: EAP 교육과정 쓰기, 읽기, 청취, 말하기

기능 교육, 12장: EAP 교육과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EAP 교육 단체인 BALEAP(2008)이 마련한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CFTEAP)는 EAP 교수자가 구비해야 할 역량들로서 학문실행 관련 역량, EAP 학습자 관련 역량,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역량, 프로그램 실행 관련 역량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학문실행과 관련된 세부 역량들로는 학문 맥락 파악 능력, 학문간 상이성 파악 능력, 학문 담화 이행 능력, 개인별 학습, 계발, 학습주도성 관련 역량이 포함된다. 학습자 관련 세부 역량들로서 학습자의 요구사항 파악 능력,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 능력, 학습자 자기주도성 향상 능력을 든다. EAP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역량으로, Bruce는 실러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 학문 텍스트 처리 및 창출 지원 능력을 든다. 프로그램 실행 관련 역량으로는 교수실습, 평가 실습 능력을 제시한다. 8장부터 11장에서 Bruce는 EAP 교수자들이 학습자들에게 학문 상황에서의 글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의 4가지 주요 언어사용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일반 영어능력 평가가 아닌 EAP 상황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개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Bruce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학문 영어사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위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바와 같이, Bruce의 EAP 저서는 EAP 교육현장에서 교수자들이 전공 학문 내용과 영어의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기초 원리 및 지식들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저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학문을 영어로 강의하고자 하는 교수자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저서가 영어교육학 및 응용언어학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저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

문적 지식이 부족하면 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EAP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자들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교육용 참고 자료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Bruce의 저서는 후속 EAP 교육 자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본 저서가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교수자들의 관점에서 EAP 교육과정 디자인 및 실행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영어 사용권 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들에서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학문 세계가 영미를 비롯한 서구 세계의 학문적 가치와 특성들을 지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 세계 영어사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양한 비 영어사용권 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자국의 학문적 역사 및 문화, 정체성이 반영된 EAP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의 영어교육학자 및 응용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고등교육 상황에 부합하는 EAP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행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원천적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저서는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들의 EAP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귀중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문헌〉

- BALEAP. (2008). BALEAP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BALEAP.
- Bruce, I. (2011). Theory and concept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Hampshire, UK: Palgrave Macmillan.
- Widdowson, H. G. (1983). Learning purpose and Language U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